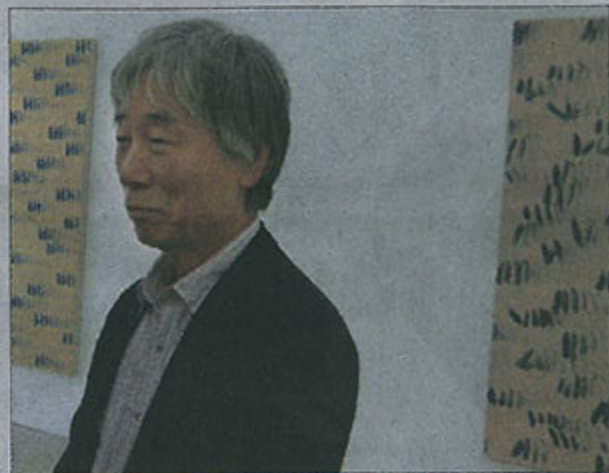


한국 현대미술의 핵심 '단색화'의 유혹

70년대 이후 독창적 작업
'한국적 미술사조' 정립
1세대 작가 초기작 선봬

단색화는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에서 핵심적 사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에 시작돼 한 세대가 흘렀지만 지금도 큰 흐름으로 명맥이 이어지면서 많은 작가들의 다양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 유사성 등으로 인해 서구 모노크롬 회화의 아류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이제 단색화는 국내외에서 한국의 독창적 미술 사조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단계다.

1일 한국 단색화의 1세대 거장들인 박서보(83)·이우환(78)·하종현(79) 화백이 유례가 드물게 한자리에 모였다. '단색화의 예술'이란 주제의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국제갤러리(서울 삼청로)에서다. 이 자리에는 또 단색화를 연구 해온 미술비평가이자 큐레이터인 윤진섭·정준모씨, 알렉산드라 먼로 미국 뉴욕 구겐하임 삼성큐레이터, 샘 바르빌·틸 펠라스 독립큐레이터, 정도련 홍콩 M+뮤지엄 수석큐레이터도 참석해 작가들과의 대담 등을 진행하며 단색화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박서보·이우환·하종현 화백(왼쪽부터 가나다순)이 '단색화의 예술'전에 전시될 자신의 작품과 작품세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 제공 국제갤러리

하종현 화백은 물론 한국 단색화의 문을 열고 터를 다진 김기린·정상화·정창섭·윤형근 등 모두 7명 작가들의 단색화 작품 40여점으로 구성됐다. 1970~1980년대에 제작된 단색화 초기 작품들이 한자리에 선보이는 것이다.

전시기획자인 윤진섭 국제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공들여 준비한 전시회"라며 "단색화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함으로써 단색화 운동의 전모를 살피고 나아가 세계 미술사의 맥락 속에서 한국 단색화의 가치, 의미를 확고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색화가 서구의 모노크롬 일부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여러 면에서 한국의 독창적 사조"라며 "모노크롬과 달리 한국 단색화는 정신성,

축각성, 행위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단색화는 군사정부 당시 엄혹한 사상·표현·언론 통제 속에서 저항성, 부정성이 작업과정에 오롯이 스며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시각성을 강조한 모노크롬과 달리 축각적인 화면을 이룬다. 나아가 단색화가들의 작업은 마치 수행자가 수행하듯 수없는 반복행위를 통해 그들만의 화면을 꾸려냈다. 색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언뜻 보면 텅 빈 듯한 화면이 단조로울 수 있지만 보면 볼수록 화면은 변화무쌍해 관람객과 작품의 대화, 교감이 가능하다. 윤 큐레이터는 "박서보의 선묘, 이우환의 선과 점의 행렬, 정상화의 뜯어내기와 매우기, 윤형근의 색면 중첩, 정창섭의 한지 겹치기,

하종현의 물감 밀어내기, 김기린의 물감 뿌리기 등에는 모두 수집회의 반복이 공통적으로 녹아 있다"고 말했다.

이우환 화백은 "1970년대는 군정이 틀을 잡아 뽀뽀 얼어붙고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된 시대상황이었다"며 "표현을 하는 예술가들로서는 뜻도 없고 이미지도 없는 작업을 했는데 이는 바로 저항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 단색화"라며 "1980년대 민중미술 쪽에서 단색화가들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단색화는 저항이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서보 화백은 "'저것도 그림이냐'는 소리를 들으며 많은 멸시를 당하기도 했다"면서 "겉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수없

이 자기를 부정하고 비워냄으로써만 가능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2011년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이우환의 회고전을 기획하기도 한 알렉산드라 먼로는 "사실 서구는 서구식으로만 단색화를 보고 해석해왔다"며 "단색화에는 한국의 문화적·시대적 특성이 배어 있다"고 말했다.

단색화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높지만 아직 단색화의 명확한 개념이나 범위, 용어, 작가들 분류 등 국내 단색화 연구는 매우 빈약한 편이다. 정준모 큐레이터는 "세계 미술 속에서 한국 단색화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본격적으로 깊은 연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시는 10월19일까지. (02)735-8449